

〈모래톱 이야기〉 속의 방언 연구*

김 봉 모**

〈차 례〉

1. 들어가기
 2. 〈모래톱 이야기〉의 방언 특성
 - 2.1. 조마이 섬의 방언
 - 2.2. 등장 인물의 방언
 3. 〈모래톱 이야기〉의 방언 어휘 분석
 - 3.1. 음운론적 분석
 - 3.2. 어법적 특성
 4. 마무리
-

1. 들어가기

〈모래톱 이야기〉는 부산이 낳은 대표적 소설가 요산 김정환 선생(1908~1996)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요산 선생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양산, 삼랑진 등을 배경으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다. 절필 후 1966년 이후 발표된 작품 속에는 〈모래톱 이야기〉의 ‘조마이섬’ 〈수라도〉의 ‘양산 화제리’, 〈뒤틀기미 나루〉의 ‘삼랑진’, 〈사뱃재〉의 ‘양산 다방리’ 등 낙동강 하류의 많은 지역이 배경으로 나타난다.¹⁾

이러한 낙동강의 배경 속에는 그곳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억센 지역인들의 삶의 모습과 인식이 실룩한 대화 속에 녹아 있다. 이 점에서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kimbm@pusan.ac.kr).

1) ‘사뱃재’는 동래를 빠져나와 양산국도로 접어들어 다방리 방향으로 조금만 들어 서면 되고, 〈수라도〉의 무대는 요산 선생의 처가이기도 한 양산군 화제리이다. ‘뒤틀기미 나루’의 위치는 삼랑진이다.

요산 선생의 문학 작품은 낙동강을 기반으로 한 토속적인 배경과 더불어 다양한 언어적 리얼리즘이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요산의 작품 중에서도 부산·경남 지역의 방언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모래톱 이야기>이다.

그 동안의 많은 학자들이 요산 선생의 문학적 가치는 민족의 정신과 관련해서 연구하였고 작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이러한 작품성과 관련한 연구는 작품 속에 반영된 지역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일이다. 요산 선생의 소설은 여러 지역 사람들을 위해 본래의 판본이 수정되어 원래의 지역어로 표기된 부분이 수정된 것도 많이 있다.³⁾ 소설에서의 지역어에 대한 자료는 원전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에 가능하다. 원래 발표된 <모래톱 이야기>는 1966년 문학 6월호에 실렸다. 그 후 1971년 12월 1일 한일문고에서 발간한 '김정한 소설집' 「인간단지」에 그 동안 발표된 여러 작품과 함께 다시 실렸다.

방언의 연구는 현지에 나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채집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교통신단이 발달하고, 대중 매체가 보편화하면서, 지역 방언의 특색이 많이 중화하여 준표준말이 되어, 실제 방언 조사로는 그 지역의 방언을 취 접촉하기 힘들다. 요산 선생은 부산 남산동에서 나서 잠시 남해 지역에 산 일이 있었으나, 평생을 부산·경남 지역에서 생활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낙동강 유역의 방언에 대하여 익숙한 토박이이다.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방언들은 오히려 요즘 채집되는 방언보다는 부산·경남 방언의 모습을 더욱 잘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방언의 분석은 특히 부산 방언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그의 문학적 특징은 첫째 역사를 과거의 일로만 보지 않고 현재에서 재조명하는 일이었다고 둘째로 토속적인 배경과 요소를 중시한 일이었으며 셋째로 낙동강 유역의 농경민의 순박한 언어를 다룸으로써 향토색을 진게 깔았으며, 넷째로 민족적 리얼리즘을 기조로 한 점이었다.

3) 이에 대한 연구는 황국명(2005), 「김정한 소설의 지역·토박이말과 원전 문제」, 제213차 한글학회 부산지회 연구발표문을 참고할 것.

이 연구는 1971년에 발표된 작품집 「인간단지」 속의 <모래톱 이야기>를 대상으로 작품 속에 반영된 방언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글쓴이가 앞으로 정리하려는 「요산 김정한 소설 속의 방언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 볼 수 있다.

2. <모래톱 이야기>의 방언 특성

소설의 배경이 된 조마이 섬이나, 작중 인물들은 허구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소설 속의 대화에서 보이는 말들은 현실 세계의 언어와 일치한다. 따라서 비록 허구의 지역과 인물이라 하더라도 언어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같다고 보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1. 조마이 섬의 방언

광복 후로 일어나는 일본 앞잡이 발호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요산 선생은 한동안 붓을 들지 않았다. 요산 선생의 후기 창작이 시작된 것은 1966년 9월 「문학」 지에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그 <모래톱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 섬사람들과는 관계없는,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 사람에게, 광복 후는 국회의원이나 유력자들에게 농토를 빼앗기고 살다가 마침내 홍수 때문에 폐허화한다는 낙동강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요산 선생의 강한 고발정신과 저항성이 그대로 노출된 작품인 <모래톱 이야기>의 배경인 ‘조마이 섬’은 원래 낙동강 하류의 가락 지역에 속한 곳이다. 그래서 이곳의 지역어는 가락 지역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중에 부산 강서구에 편입되어 부산 지역의 특성과 혼재된 방언적 특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⁴⁾

일반적으로 방언적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음운 체계, 어법 체계, 어

4) 가락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는 안길남, 「낙동강 하류 가락 지역어 조사 연구」, 세종출판사, 2005를 참고할 것.

휘 체계가 중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나 음운적인 특성인 닿소리 체계와 홀소리 체계는 드러난 대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지만 중요한 성조의 체계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소설이라는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어휘나 문법적 특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각 대화에서 나타난 자료를 대상으로 소설 속 조마이 섬의 방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부 경남권은 음운론적으로 서부 방언권에 비해 /ㄱ/ 홀소리와 /ㄴ/ 홀소리, /ㅡ/ 홀소리와 /ㅣ/ 홀소리의 변별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송, 1974 참조). 조마이 섬에서 발견되는 음운론적 특성으로는 홀소리 체계는 ‘6 홀소리 체계’가 아니라 ‘7 홀소리 체계’로 확인된다. 부산 방언에서 /- / 홀소리는 일반적으로 /ㅣ/ 홀소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마이 섬에서 나타난 대화에는 이러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 (1) ㄱ. “잘 모릅니더. 저가 두 살 때 군에 나갔다 카니 ...
그라곤 통 안 돌아 왔거던요.”
나. “춘삼이란 어른인데 와 선생님을 잘 알데요. 부산에도 가끔 나갑니더.”
ㄷ. “밤낮 한다는 기 ‘꼭구릉 우는 소리’지. 어데 그기나 한 분 해 보소.”

(1ㄱ)의 ‘모릅니더’는 ‘모릅니더’로 나타나는 것이 부산 지역의 특징이나 /- /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1나)에서 ‘어른’도 ‘어런’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ㅡ/ 홀소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ㄷ)에서도 ‘그기나’에서 ‘--’가 나타난다. 이러한 /ㅡ/ 홀소리는 축약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 (2) ㄱ. “본대대로 물길을 터놔다 카드만요. 글 안했으문”
나. “마침 잘 만냈임더. 글 안해도”

(2ㄱ)의 ‘글’과 (2나)의 ‘글’은 모두 ‘그리’의 준말이다. 이 경우도 /ㅡ/ 홀소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조마이 섬의 홀홀소리는 /

一/가 유지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당소리의 경우 /ㅅ/와 /ㅆ/이 비변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한 두 곳에서 보인다.⁵⁾

- (3) ㄱ. “우리 거무란 놈 말을 들으니 선생님은 글을 잘 썬
다카데요?”

ㄴ. “배도 남 썬다가 베린 걸 사가주고 ….”

ㄷ. “재산이랄까사 머 있입니까.”

ㄹ. “그런기사 어데 돈이 댁니까.”

ㅁ. “우리싸 머 압니까?”

ㅂ. “하기싸 시인들이니칸에 훌륭하겠지요.”

(3ㄱ)에 나타난 ‘썬다’[글을 쓰다], (3ㄴ)의 ‘썬다’[사용하다]는 /ㅆ/으로 나타나기만 하고 /ㅅ/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3ㄷ, ㄹ)의 ‘-사’와 (3ㅁ, ㅂ)의 ‘-싸’는 한 형태소이다. 그러므로 /ㅅ/과 /ㅆ/은 수의 변이음이다.⁶⁾

또한 이 지역의 겹홀소리는 당소리 뒤에서 제약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ㄱ. “다른 패들이 나와도 머 벨 수 있더나?”

ㄴ. “글 베린다꼬 그라능기요?”

ㄷ. “입으로만 머니머니 해뎠지, 발 맨드라 카니 제우
맨들어 논 ….”

ㄹ. “조개새끼도 파고 재첩도 줬지만 그런기사 어데 돈
이 댁니까.”

(4ㄱ)의 ‘벨’, (4ㄴ)의 ‘베린다꼬’, (4ㄷ)의 ‘해뎠지’, (4ㄹ)의 ‘댁니까’ 등에서 보듯이 당소리 뒤의 /ㄱ/, /기/ 겹홀소리가 홀홀소리로 바뀌어 /

5) 경남 방언의 ‘ㅅ’와 ‘ㅆ’의 비변별 현상은 이근열, 『경남 방언의 /ㅅ/과 /ㅆ/의 비변별 현상』, 『우리말연구』 제10집, 우리말학회, 2000, 1~22쪽을 참고할 것.

6) <수라도>에서는 “실데없는 짓 하고 땡기지 마소! 어서 돌아가소!”에서 보듯 ‘썰데없다’가 ‘실데없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ㅅ’과 ‘ㅆ’이 수의변이음인 것이 확인된다.

게, ㅈ/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닿소리 뒤의 겹홀소리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

(5) ㄱ. “선조때부터 물려 받은 밭때기들은 나라 땅이라 켓
다가”

1. “그 곳 바다 속에 너어 버렸지요.”

ㄴ. “괜찮십더, 산도 아인테요.”

(5ㄱ)의 ‘물려’, (5ㄴ)의 ‘버렸지요’, (5ㄷ)의 ‘괜찮십더’는, 각각 ‘물리’, ‘버렸지요’, ‘괜찬십더’로 /ㄹ/ 겹홀소리가 /ㅣ/ 홀소리로 나타나거나 /내/ 겹홀소리가 /ㅈ/ 홀홀소리로 나타나는 부산·경남 방언의 일반적 특징과는 달리, 겹홀소리가 유지되어 있다. 이처럼 겹홀소리의 제약은 필수적인 규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운 체계의 특성은 제한적인 자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부산 방언권에서 벗어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만일 다른 요인으로 부산 방언권이 확인이 된다면 이는 이 소설에서 나타난 방언의 부정확한 사용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소설이 글말로써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둔다는 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방언권의 판단은 문법적인 요소로 가능한데, 이는 불음씨끝이나 베품씨끝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불음씨끝은 ‘-녕기오’이고 베품씨끝은 ‘-ㄴ더/-십더’로 나타나고 김해 지역에서는 각각 ‘-요, -요’로 나타난다.⁷⁾

조마이 섬에서 나타난 베품씨끝은 ‘-ㄴ더, -(니)더, -ㄴ데이’로 나타난다.

(6) -ㄴ더

ㄱ. “나릿배 통학생-일더.”

1. “나릿배만 진작 타지고 빠른 날은 두어 시간만 하먼

7) 박지홍(1975)에서는 경상도 방언의 하위 방언권을 역사적인 행정구역인 ‘진’과 달본 형태인 높임베품씨끝과 높임불음씨끝을 갖대로 하여 상주, 안동, 경주, 대구, 김해, 진주 등의 6대 방언권으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이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되더.”

ㄷ. “팬참-싫더, 산도 아인데요.”

ㄹ.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ㅁ. “선생님 이야기는 우리 건우한테서 잘 듣고 있-싫더.”

ㅂ. “하도 하는 것들이 심해서 한분 해보기는 해 봤지
요. 그 문딩이 때를 싣고 왔일 때 말-입더 ….”

ㅅ. “낙동강 물이 파아랑니 푸르니 어찌니 … 하는 것들
말-입더.”

ㅇ. “아, 그렇기요? 좋은 노인-입더.”

ㅈ. “남은건 물바다뿐-입더. 우짤라꼬 이놈의 하늘까지! ….”

ㅊ. “마침 잘 만냈-입더. 글 안해도 ….”

(7) -(니)더

ㄱ. “맹지면에서 나릿배로 땡기는 아입니-더.”

ㄴ. “A반 학생은 저 하나뿐입니-더.”

ㄷ. “예, 제복 갑니-더.”

ㄹ. “반 시간 좀더 걸립니-더.”

ㅁ. “잘 모릅니-더. 저가 두 살 때 군에 나갔다 카니 …
그라곤 통 안 돌아 왔거든요.”

ㅂ. “수고하십니-더.”

ㅅ. “좀 들어 가입시다. 촌 집이 돼서 누추합니-더만 ….”

ㅇ. “섬 애기? 저건 무슨 책이지?” “암 것도 아입니-더.”

중방언	작은방언	지 역	물음씨끝	배품씨끝
상 주	상 주	상주, 문경, 선산, 김천	-요/-여	-요/-여
안 동	안 동	안동, 울진, 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니껴	-니더
경 주	경 주	경주, 영덕, 영일, 영천	-녕기오	-니더
	부 산	부산, 울산, 양산, 동래	-녕기오	-ㅁ더/-싫더
대 구	대 구	대구, 군위, 칠곡, 성주, 성산, 경산, 고령, 달성, 청도	-녕교	-니더
	밀 양	밀양, 창녕, 의령	-녕개	-너마
김 해	김 해	김해, 창원, 함안, 사천, 고성, 거제	-요	-요
	통 영	통영, 남해	-지다	-요다
진 주	진 주	진주, 하동,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요	-구매

- ㅈ. “춘삼이란 어른인데 와 선생님을 잘 알데요. 부산에
도 가끔 나갑니-더.”
- ㅊ.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라운니요! 지금도 우리집에
가끔 옴니-더.”
- ㅋ. “어데, 그때 문딩이한테 물린 자리 한분 봄시-더.”
- ㄷ. “딸 마이소. 자, 저리 가서 이야기나 합시-더. ….”

위의 (6)은 ‘ㄴ더’ 형으로 나타난 경우이고, (7)은 ‘-(니)더’ 형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이 경우를 비교해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방언권에서는 ‘-ㄴ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씨끝인데, 이 조마이 섬의 방언에서는 ‘니더’와 혼재하고 있어 두 지역 간의 방언의 간섭이 일어났거나 잘못 인용된 경우처럼 보여 방언권의 설정이 모호하다. 그러나 두 자료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ㄴ더’로 짧게 나타나는 경남 동부 해안 방언권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8)에서 보듯이 ‘-ㄴ디’의 확인형으로 ‘-ㄴ디데이’가 나타나지 않고 ‘-ㄴ데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원래 이 지역의 베풀씨끝의 형태가 ‘ㄴ디’임을 확인하게 된다.

(8) -ㄴ데이⁸⁾

- ㄱ. “비록 개깃배를 타고 있지만 나도 과히 나쁜 놈은 아임데이.”
- ㄴ. “와 뽀히 보능기요? 내 안주 술 안 취했음데이. 염려 마이소.”
- ㄷ. “우리 섬에 대한 글 한 분 써 보이소. 멋지گی! 재밌 실깁데이.”

또 조마이 섬에서 나타난 물음씨끝은 ‘-능기요, -ㅇ기요, -고, -나, -교, -꺼’ 등이다.

8) <수라도>에서는 “시쫓돈율랑 그만 두이소! 내가 대신 다 내 놓았-임데잇 ….”에서 보듯이 ‘-ㄴ데잇’ 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ㄴ데이’의 강세형이다.

(9) -능기요

- ㄱ. “와 빨리 보-능기요? 내 안주 술 안 취했음데이. 염려 마이소.”
- ㄴ. “그때 바로 이 갈밭새 부자가 앞장을 안 섰-능기요.”
- ㄷ. “그 바람에 저 사람은 육이오 때 감옥살이 또 안했-능기요.”
- ㄹ. “추접다꼬9)? 글 베린다꼬 그라-능기요?”
- ㅁ. “그만 하소. 영감이 머 글이나 이르-능기요.”
- ㅂ. “배도 남 씨다가 베린 걸 사가주고 제복 원양어업인가 먼가 숭내10)를 널라 카다가 배만 카이는 사람들까지 떼죽음을 안 시켰-능기요. 거에다가 머 시체도 몬 찾았거이와 회사가 워낙 시원찮아 노오니 위자료란 기나 어디 지데로 나왔-능기요.”
- ㅅ. “집이고 농사고 머 있-능기요. 다행히 목숨들만은 건졌지만, 그 바람에 갈밭새 영감이 또 안 끌려갔-능기요.”
- ㅇ.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 살인죄라니 우짜문 좋겠-능기요?”

(10) -ㅇ기요

- ㄱ. “수덕이 할배 이름이 멧고?” “춘삼이 아잉기요.”
- ㄴ. “아, 그렇기요? 좋은 노인임더.”
- ㄷ. “조마이섬의 인물 아잉기요.”

(11) -고/-나

- ㄱ. “수덕이 할배 이름이 멧-고?”
- ㄴ. “다른 패들이 나와도 머 벨 수 있더-나?”

이 중에 부산 방언권의 물음씨끝인 ‘-녕기요’가 이 지역에서선 (9)에서 보듯이 ‘-능기요’로 나타나고, (10)에서처럼 ‘-ㅇ기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능기요’는 ‘-ㅇ기요’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듯하다는 것을 대

9) ‘추접다’는 ‘더럽다’의 이 지역 방언형이다.
10) ‘숭내’는 ‘흉내’의 말머리 입천장소리되기형이다.

화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 ‘-능기요’는 ‘하이소’ 체로 아주 높임의 상태에 쓰이는 물음씨끝인데, ‘하게’ 체인 낮춤의 경우는 (11)에서와 같이 ‘-고/나’가 발견된다.

(11ㄱ)은 물음말이 있는 물음법 씨끝인 ‘-고’의 경우이다. (11ㄴ)은 물음말이 없는 ‘-나’의 경우인데, 여기서 ‘머[무엇]’이라는 것은 물음말이 아니라 부정사이다. 이것은 ‘누가 왔노’와 ‘누가 왔나’에서 앞의 ‘누가’는 물음말(who)이지만, 뒤의 ‘누가’는 부정사(anyone)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차이는 부산·경남 방언에서는 “머, 어테, 누가” 따위의 억양의 차이로 변별된다.¹¹⁾ 조마이 섬 방언에는 ‘-가/노’의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물음씨끝 ‘교’는 (12)에서 보듯이 ‘하소’ 체인 예사 높임의 경우에 쓰인다.¹²⁾

(12) -교

- ㄱ. “그까진 국회의원이 다 먼교? 돈만 있음 ×라도 다 되는 기고, 되분 나랏땅이나 훑이고 팔아 묵고 그런 놈들이 안 많던기요?”
- ㄴ. “그 아이 아배가 누군교?”

(12ㄱ)의 ‘먼교’, (12ㄴ)의 ‘누군교’에서 보듯 ‘-교’가 물음말인 ‘무엇, 누구’ 뒤에 분포하기 때문에 ‘-고’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꺼’ 형도 많이 나타난다.

(13) -꺼

- ㄱ. “할아버지는 개깃배를 타시고, 재산이랄 끼사 머 있압니-꺼.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밭때기들은 나라 땅이라 켜다가, 국회의원 땅이라 켜다가… 우리짜 머 압니-꺼.”

11) 이병운, 「경남 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연구』 제7집, 우리말연구회, 1997, 195~198쪽.

12) 이 지역의 하소체는 ‘-소, -요, -(는)교’ 등이 있는데, 동남 해안 지역에서는 ‘-(는)교’를 주로 쓰고 경남 서남 지역에서는 ‘-요’와 ‘-소’를 많이 쓴다.

- 나. “그건 남자들이라야 안 됩니꺼, 또 배도 있어야 하고요.”
다. “물 빠질 땐 개발이싸 늘 안 나가는기요. 조개새끼도
파고 채첩도 좇지만 그런기사 어데 돈이 댁니꺼.”
르. “우리 걸은 기 멀 알며, 무슨 힘이 있입니꺼. 하도
하는 것들이 심해서 한분 해보기는 해 봤지요.”
ㅁ. “하기싸 시인들이니칸에 홀통하겠지요. 머리도 좋고
... 선생도 시인 아입니꺼.”
바. “예, 언제쯤 오실랍니꺼?”

이처럼 조마이 섬의 방언은 부산 방언권에 해당하지만 음운 체계상으로 7개의 홀홀소리 체계이며, 겹홀소리 제약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배뽕씨끝과 물음씨끝의 형태도 더러는 변이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부산 방언권의 전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등장 인물의 방언

이러한 지역어적 특성을 기준으로 각 인물이 지니고 있는 방언적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우’의 말은 전형적인 조마이섬 토박이말이 아니다.

- (14) ㄱ. “할아버지는 개깃배를 타시고, 재산이랄끼사 머 있
입니꺼. 선조때부터 물려 받은 밭때기들은 나라 땅
이라 캬다가, 국회의원 땅이라 캬다가 ... 우리싸 머
압니꺼.”
나. “일기랑 또 책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14ㄱ)에서 나타나는 방언적인 요소는 ‘개깃배, -랄끼사, 머 -꺼, 캬다가, 우리싸’ 등인데 이 말은 부산 방언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할아버지[할배], 물려 받은[물리받은], 국회의원[국해이원]’ 등의 낱말은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음은 아니다. 이는 이 소설이 가지는 의미 전달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씨끝과 특정한 토씨, 어찌말은 이 지역 발음에 따른 어휘를 그대로 쓰지만 그 외 중요한 낱말은

표준말을 그대로 써서 의미의 명료성을 기하고 있다. 또 (14ㄴ)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서 ‘-캉’, ‘-겔은’으로 나타날 토씨가 ‘-랑’, ‘-같은’ 등의 토씨로 드러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표준말 교육을 받은 학생으로 될 수 있으면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것으로 격식적인 말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표준말과 방언이 뒤섞여 있을 때 이를 준표준말이라 한다.

‘건우’ 어머니의 경우, ‘33세의 농사를 짓는 시골 색시’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방언이 그대로 반영될 만한 인물이다.

(15) ㄱ. “물 빠질 땐 개밭이싸 늘 안 나가는기요. 조개새끼도
과고 재첩도 줏지만 그런기사 어뎌 돈이 뎌니꺼.”

1. “선생님 이야기는 우리 건우한테서 잘 듣고 있십디.
그라고 이 섬 저 웃바지에 사는 윤센도 선생님 말
을 끝잘 하데요. 우리 건우가 존 담임 선생님 만났
다민서 ….”

(15)에서 보듯이 ‘건우 어머니’는 건우보다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낱말이 많이 나타난다. (15ㄱ)의 ‘-이싸, 안 나가는기요, 그런기사, 뎌니꺼’, (15ㄴ)의 ‘있십디’ 등은 이 지역의 씨끝과 토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개밭, 웃바지’ 등과 같은 고유한 지역어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 토속적인 면을 더 많이 드러내는 인물로 보인다.¹³⁾

건우 할아버지인 ‘갈밭새’ 영감의 경우는 다르다. 갈밭새 영감은 ‘선비’의 강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노인인 윤춘삼에 비해서 격식적인 씨끝을 사용한다.

13) ‘개밭’은 사전에 나오는 ‘작은 조개’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개+밭’이 그 이원인데 바닷물을 뜻하는 ‘개’와 ‘밭’이 결합된 말이 ‘개밭’로 발음되는 것으로 ‘갯벌밭’을 의미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물이 빠질 때 바닷가에 나가 호미로 ‘조개, 재첩, 굴’ 등을 캐서 오는데, 이것을 ‘개밭을 산다’고 한다. ‘웃바지’는 ‘위+밭이’로 ‘위쪽’의 땅을 의미한다. ‘바지’는 ‘언덕바지’처럼 경사진 곳을 의미하는 말이다.

- (16) ㄱ. “비록 개짓배를 타고 있지만 나도 꽤히 나쁜 놈은 아임데이. 내 선생 이바구 다 듣고 있소. 이 송아지 빨갱이한테도 여러 분 들었고 우리 손жат놈한테도 듣고 있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¹⁴⁾
- ㄴ. “촌사람이라꼬 바본 줄 알지 마소. 여간 답답해서 그런 소릴 하겠소”
- ㄷ. “와 그 신문같은 데도 그런 기 수타 난다 카데요. 남은 보릿고개를 못 냉기서 술가지에 모가지들을 매다는 판인데, 낙동강 물이 파아랗니 푸르니 어찌니 … 하는 것들 말입디.”
- ㄹ. “인자 판 말은 안 하지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이칸에 이왕 만낸 집에 저 송아지 빨갱이나 이 갈발새가 사는 조마이섬 이바구나 좀 하지요.”
- ㅁ.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짜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16)은 ‘갈발새’ 영감이 선생인 나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에 나타난 격식적인 태도는 그의 중조부가 되는 사람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당쟁으로 조마이 섬으로 피신했던 과거의 이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위의 (16)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하는 말인데도 ‘-소’, ‘-임디’, ‘-지요’ 같은 다양한 씨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생님에 대한 높임의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16ㄱ, ㄴ)의 ‘-소’는 상대에 대한 예사 높임의 태도를 드러내는 씨끝으로 상대인 건우 담임 선생을 처음 만날 때와 자신의 억울함으로 언성을 높여 말할 때 드러난다. (16ㄷ)에 나타난 ‘-임디’는 상대를 높이는 씨끝으로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적인 씨끝이다. 그러나 (16ㄹ, ㅁ)에서 나타난 ‘-요’는 이 지역의 일반적인 씨끝이 아니다. 인근의 김해 지역의 언어에서는 ‘-요’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김해 지역의 언어적 형태가 유입된 경우이거나 갈발새

14) ‘손жат놈’은 이 지역의 방언형이 아니다. 김정한 소설 <수라도>에 나타난 “와 그라도, 우리 부체새끼를 … 그러지 마라, 내 손지다.”에서 보듯 ‘손자’는 ‘손지’로 나타난다.

영감의 양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보기를 보면 ‘갈발새’ 영감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토박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17) “낙동강 잉어가 떠이 정지 바닥에 있던 부지깥이도 떠다카듯이 배도 남 씨다가 베린 걸 사가주고 제북 원양 어업인가 먼가 숨내를 벨라 카다가 배만 카이는 사람들까지 떼죽음을 안 시킴기요. 거이다가 머 시체도 몬 찾았거이와 회사가 워낙¹⁵⁾ 시언참아 노오니 위자료란 기나 어디 지대로 나왔능기요. 태도 양이지 태도 앙이라.”

위의 (17)에서 나타난 낱말에서 ‘떠다[뛰다], 씨다[쓰다], 베린[버린], 제북[제법], 숨내[흠내], 거이다가[게다가], 시언참아[시원참아], 노오니[놓으니], 기나[것이나], 지대로[제대로], 앙이라[아니라]’ 등과 같이 이 지역의 다양한 방언형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모래톱에서 가장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인물은 ‘송아지 빨갱이’인 윤춘삼이다.

- (18) ㄱ. “와 언젠가 신문에도 짜다라 안 났던기요. ‘허리켄’ 인가 먼가 하는 폭풍을 만내 시운참은 우리 삼척배들이 마구 결단이 난 일 말임다.”
 ㄴ. “집이고 농사고 머 있능기요. 다행히 목숨들만은 건졌지만 그 바람에 갈발새 영감이 또 안 끌려났능기요.”
 ㄷ. “그래서 내가 지금 경찰서꺼정 갔다 오는 길인데, 마침 잘 만났임더. 그란해도 ….”

(18)에서 보듯 윤춘삼 노인은 이 지역의 토박이 화자이다. ‘-임더, -능기요’와 같은 씨끝을 그대로 쓰고 있고, ‘허리켄’을 ‘허리켄’으로 발음하는 것과 ‘짜다라[흔히], 그란해도[그러지 않아도]’ 등과 같은 낱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5) ‘워낙’은 이 지역에서 ‘영캉’으로 나타난다.

3. <모래톱 이야기>의 방언 어휘 분석

3.1. 음운론적 분석

<모래톱 이야기>에서 나타난 어휘들은 음운론적 측면에서 홀소리의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산·경남 지방의 홀소리는 그 소리의 값이 극단으로 구분되어 분화되는 경향이 많다. 특히, /ㅡ/와 /ㅣ/의 통합, /ㄱ/와 /ㄴ/의 통합과 같은 음운 체계의 조절로 그 구조가 변별력을 극대화한 단순한 구조로 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3.1.1. 앞홀소리되기

먼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ㅡ/ 홀소리는 유지되고 있으나 더러는 /ㅡ/ 홀소리가 /ㅣ/ 홀소리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이는 ‘앞홀소리되기’의 일종으로 앞에 분포하는 닿소리에 따라 홀소리의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이다.

(19) ㅣ < ㅡ

- ㄱ. 들리다 < 들르다(18)¹⁶⁾
- ㄴ. 있입니꺼 < 있습니까(21)
- ㄷ. 왔일때 < 왔을때(21)
- ㄹ. 썬다 < 쓴다(22,23)
- ㅁ. 재밋실 < 재밋을(22)
- ㅂ. 안일어났이문 < 안 일어났으면(26)

위의 (19ㄴ~ㄷ)에서 보듯이 /ㅡ/ 홀소리의 /ㅣ/ 홀소리로의 변이는 음절상 결합되는 닿소리의 환경이 /ㄴ/이 대부분이고, (19ㄱ)에서만 /ㄷ/음이 나타났다. 이는 입천장 닿소리일 때 /ㅡ/음이 앞 입천장 홀소리[구개모음]로 이끌려 가는 것으로, 일종의 ‘홀소리 입천장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보통의 입천장소리되기는 홀소리로 말미암아 닿소리가 닳아가는 현상이라면 이 현상은 반대로 닿소리의 영향으로 홀소리가

16) 뒤에 나타난 숫자는 그 낱말이 나타나는 원전(『인간단지』, 한얼문고)의 페이지이다.

닿아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앞홀소리되기’는 부산·경남 지역 방언에서 빈도수가 높은 음운 현상인데, 앞서 분포하는 닿소리의 영향없이 홀소리 자체가 앞홀소리 쪽으로 그 위치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20) ㅈ < ㅊ

- ㄱ. 보래 < 보라(17)
- ㄴ. 만낸 집에 < 만난 집에(20, 23, 29)
- ㄷ. 맨들어 < 만들어(20, 22)
- ㄹ. 빨갱이 < 빨갱이(22)
- ㅁ. 택도 < 텃도(24)

(20)에 나타난 /ㅈ/의 /ㅈ/로의 앞홀소리되기는 앞에 분포하는 닿소리가 각각 /ㄹ, ㄴ, ㄷ, ㅁ, ㅂ, ㅅ/로 여린 입천장소리가 아닌 닿소리이다. 이러한 앞홀소리되기는 아래 (21)과 같이 /ㅈ/에서 /ㅊ/로 바뀌는 현상도 있다.

(21) ㅈ < ㅊ

- ㄱ. 나룻배 < 나룻배(11)
- ㄴ. 문딩이떼 < 문둥이떼(21)
- ㄷ. 밀가리 < 밀가루(27)

(21)에서도 홀소리 ‘ㅈ’ 앞에 분포하는 닿소리가 /ㄹ, ㄴ, ㄷ/으로 입천장소리의 자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22)에 나타나듯이 앞홀소리인 /ㅈ/가 특이한 환경에서 /ㅈ/로 원순성 자질을 가진 뒤홀소리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22) ㅈ < ㅈ

- ㄱ. 가주고있고 < 가지고 있고(17)
- ㄴ. 사가주고 < 사가지고(23)

(22)의 경우는 /ㅈ/ 홀소리가 /ㅈ/ 홀소리로 변화한 경우인데, /ㅈ/

홀소리 앞에 분포하는 닿소리는 /ㅈ/으로 이는 입천장소리로서 /ㅣ/의 구개성과 닮아 있지만, 원순성의 /ㅌ/로 옮겨간 것은 일종의 홀소리 이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경남 방언에서는 (23)과 같이 /ㄴ/에서 /ㄱ/로 단지 뒤홀소리에서 앞홀소리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 (23) ㄱ < ㄴ
함부레 < 함부로 < 독메 >

또 이러한 앞홀소리되기는 아래의 (24)에서처럼 동일한 개구도를 넘어서 앞높은 홀소리인 /ㅣ/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 (24) ㅣ < ㅏ, ㅑ
ㄱ. 단딩이 < 단단히 < 굴살이 >
ㄴ. 비이가 < 보여가 < 축생도 >

(24ㄱ)은 /ㅏ/ 홀소리가 /ㅣ/ 홀소리로 옮긴 현상이고 (24ㄴ)은 /ㅑ/ 홀소리가 /ㅣ/ 홀소리로 옮긴 현상이다. 이러한 앞높은 홀소리되기는 앞서는 닿소리가 /ㄷ, ㅈ/이기 때문에 음절의 구조제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앞높은 홀소리를 선호하는 경향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¹⁷⁾ 이런 현상은 성조의 대립과 관계있을 듯도 하나,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25) ㅣ < ㅓ
ㄱ. 수덕이할매 < 수덕이할매(17)
ㄴ. 들렀겠네요 < 들렀겠네요(18)
ㄷ. 그기나 < 그것이나(22)
ㄹ. 기 < 것(24)

17) 이런 이유로 이근열(1997)에서는 이러한 앞홀소리되기를 어두 음절을 강화하려는 일종의 음절강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이근열, 『경남 방언의 음운론』, 세종출판사, 1997, 180~185쪽).

(25)의 경우는 /ㅏ/ 홀소리가 앞높은 홀소리인 /ㅣ/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25ㄱ, ㄴ)의 경우와 (25ㄷ, ㄹ)은 그 경우가 다르다. (25ㄱ, ㄴ)은 각각 /ㅏ/ 홀소리에 앞선 닿소리가 /ㄷ, ㄹ/로 입천장소리가 아닌데 비해 (25ㄷ, ㄹ)은 /ㅏ/ 홀소리에 앞선 닿소리가 여린 입천장소리인 /ㄱ/이다. (25ㄷ, ㄹ)은 /ㄱ/과 /ㅏ/의 음절 결합이 여린 입천장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발음의 편이로 보면 /ㅏ/ 홀소리를 굳이 앞높은 홀소리로 옮길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도 앞높은 홀소리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앞높은 홀소리의 선호 현상은 (26)과 같이 동일한 앞홀소리에서도 높은 홀소리인 /ㅣ/로 발음하는 경향으로까지 확대된다.

(26) ㅣ < ㅐ

- ㄱ. 멋지기 < 멋지게(22)
- 나. 지밭 < 제밭(22)
- ㄷ. 떼어 < 땀어(27)
- ㄹ. 어지 < 어제(27)

이 지역의 음라우트[ㅣ모음 역행동화]는 앞홀소리되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음라우트와 앞높은 홀소리되기는 혀의 위치를 앞홀소리로 바꾸는 것은 동일하지만 개재 닿소리가 존재한다는 점, 동화주인 /ㅣ/ 홀소리가 있다는 점, 음절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모래톱 이야기>의 어휘에 나타나는 음라우트는 다양하고 그 범위도 넓다.¹⁸⁾

18) 이근열(1997)에서는 경남 방언의 음라우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의 음라우트 현상과 같지만 경남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경남 방언의 음라우트는 다른 지역보다 실현 환경이 광범위하고 실현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부 지방에서는 대체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경남 방언에서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물론 형태소 경계에서까지 음라우트가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 둘째로 다른 지역과도 마찬가지로 경남 방언에서도 선행 홀소리와 /i, y/ 홀소리 사이에 [+cor] 자질이 개입하면 단일 형태소 안에서나 형태소의 연결에서나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리 제약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경남 방언의 음라우트 현상은 닿소리의 제약에 있어서 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많고

- (27) ㄱ. 땡기는<다나는(11)
 ㄴ. 개깃배<고깃배(19)
 ㄷ. 앵기문<웁기면(247)
 ㄹ. 적일놈들<죽일놈들(21)
 ㅁ. 못 냉기서<못넘기어서(21)
 ㅂ. 글 베린다꼬<글 버린다꼬(22)

(27ㄱ, ㄴ, ㄷ, ㄹ, ㅁ)에서는 /ㄱ/ 닿소리 사이에서 뒤홀소리가 앞홀소리로 바뀌는 경우로 일반적인 음라우트 현상에 속하지만, (27ㄴ)에 서처럼 설정성[+cor]이 있는 /ㄹ/ 닿소리 사이에서 뒤홀소리가 앞홀소리로 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음라우트에 속한다. 특히, (27ㄹ)에서처럼 /ㄷ/의 /ㄱ/로의 음라우트는 부산 방언권에서 나타나지 않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¹⁹⁾

3.1.2. 등귄홀소리되기

다음으로 입술 등귄닿소리로 말미암아 홀소리가 그 입술 등귄을 닮아가는 등귄홀소리되기도 나타난다. 이는 안등귄홀소리인 /ㅡ/가 선행하는 두입술소리의 순음성을 닮아가는 것으로 일종의 음절 배열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 (28) ㄱ>ㄷ
 ㄱ. 번>분(18,19,21,22)
 ㄴ. 묵고>먹고(19,67)
 ㄷ. 어찌>우찌(20,28,30)

(28ㄱ, ㄴ)에서는 각각 ‘ㅂ, ㅁ’과 같은 두입술소리로 말미암아 /ㅈ/

적음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음라우트는 등화의 일종이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홀소리가 앞높은 홀소리로 실현되기 때문에 높은 피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홀소리되기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이근열, 앞의 책, 166~185쪽).

19) 이 경우 ‘적일 놈’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소설에서 나타난 것은 어형을 고려한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홀소리가 /ㄱ/ 홀소리로 변이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28ㄷ)과 같이 두 입술소리가 없이 한 형태소 안에서 변이되는 형태는 이화 현상에 해당한다.²⁰⁾

3.1.3. 홀홀소리되기

또한 (29)에서처럼 부산·경남 방언의 보편적 음절 결합 제약 때문에 닿소리와 결합되는 접홀소리는 홀홀소리로 바뀐다.

(29) ㄱ.머라<뮐라(17,19,21,22,23,24)

1. 시언찰아<시원찰아(23)

ㄷ. 뱌수<뱌수(22,62)

ㄹ. 뻬<뻬(23)

ㄴ. 땡지면<땡지면(26)²¹⁾

(29)는 일반적인 홀홀소리되기의 경우이다. (29ㄱ, ㄷ)은 /ㄱ/ 접홀소리가 /ㄱ/ 홀홀소리로 바뀐 것이며 (29ㄷ, ㄹ, ㄴ)은 /ㄷ/ 접홀소리가 닿소리 앞에서 /ㄱ/ 또는 /ㄴ/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다음 (30)의 경우는 홀홀소리되기가 일어난 후에 다시 홀소리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는 기술적 순위(descriptive order)로 설명할 수 있다.

(30) ㄱ. 빙신<병신(46)

1. 비렁<벼랑

ㄷ. 되문<되면(19,26,30,247)

(30ㄱ, 1.)은 /ㄷ/ 접홀소리가 /ㄴ/ 홀홀소리로 바뀐 후에 이 /ㄴ/ 홀소리가 앞높은 /ㄴ/ 홀소리로 바뀐 정위로 해석된다. (30ㄷ)은 /ㄷ/ 접홀소리가 /ㄴ/ 홀홀소리로 바뀐 후에 다시 /ㄱ/로 이화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31)에도 나타난다.

20) 이러한 이화는 ‘아베<아비(27)에서도 나타나고, 닿소리의 이화는 ‘제록<제법(12), 몬 찻다<몯 찻다(23)’에 나타난다.

21) ‘땡지’는 이 지역의 지명이다.

- (31) ㄱ. 틀렸습니까<틀렸습니까(19)
 ㄴ. 잘못걸렸네요<잘못걸렸네요(22)
 ㄷ. 넣어버렸지요<넣어버렸지요(23)
 ㄹ. 시켰능지요<시켰는지요(23)

(31)은 닿소리와 결합하는 /ㄱ/ 겹홀소리가 홀홀소리로 바뀐 후에 다시 /ㅣ/로 앞높은 홀소리로 바뀐 경우이다.

3.1.4. 축약

부산 지역은 길이로 분화되지 않고 높이로 분화되는 특성상 축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지역에서도 다양한 축약이 나타난다.

- (32) ㄱ. -카데요<-고하데요(13)
 ㄴ. 암것도<아무것도(15)
 ㄷ. 윤쌔<윤생원(17)
 ㄹ. 지냈담서요<지냈다면서요(17)
 ㅁ. 존 담임<좋은 담임(27)

(32)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로 보이는 것은 (32ㄷ)의 ‘생원’의 축약형인 ‘쌔’이다. 두 개의 음절을 하나의 음절로 축약할 경우 앞 음절의 첫소리와 가운뎃소리를 그대로 두고 뒤 음절의 끝소리인 받침을 이용하여 한 음절을 만든다. 또 (32ㄹ)의 경우, ‘-다면’을 축약해 ‘담’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 두 음절을 축약할 경우에는 뒤 음절의 홀소리를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 음절의 첫소리나 끝소리나 할 것 없이 닿소리는 축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음절의 축약은 아래 (33)에서 보듯이 두 홀소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흥미롭다. 축약 현상은 부산·경남 방언에서 보이는 노력 경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 (33) ㄱ. 그란햇이문<그리 안 했으면(27)
 ㄴ. 그란해도<그리 안 해도(29)

3.1.5. 입천장소리되기

입천장소리되기[구개음화]는 입천장소리가 아닌 소리가 ‘이’나 ‘y’ 앞에서 센입천장소리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이것은 위치에 따른 닮음으로 일종의 노력 경제를 통한 청각 영상의 강화 현상으로 보인다.²²⁾

(34) ㄱ. 만넨 집에<만난 김>(20)

ㄴ. 제우<겨우>(22,101)

ㄷ. 숭내<홍내>(23)

(34ㄱ, ㄴ)은 말머리 /ㄱ/의 입천장소리되기로 ‘김’이 ‘짐’으로 변이된 형태이고, (34ㄷ)은 말머리 /ㅎ/의 입천장소리되기로 /ㅎ/이 /ㅈ/로 변이한 형태이다. 특히, 말머리 음절의 입천장소리되기는 부산·경남 방언에서는 주로 /ㄱ, ㅋ/ 등과 같은 입천장 닿소리와 목구멍 갈이소리인 /ㅎ/에만 한정하여 일어난다.

3.1.6. 된소리되기

이러한 닿소리의 변화는 된소리되기로도 나타난다. 부산 지역의 된소리되기는 주로 말머리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모래톱 이야기>에서 나타난 어휘 중에서는 말머리 된소리되기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낱말 안의 된소리되기가 빈도가 높다.

(35) ㄱ. 조끔<조금>(26)

ㄴ. 편짚지만<견졌지만>(29)

(35ㄱ)은 한 낱말 안 /ㄱ/의 된소리되기이며, (35ㄴ)은 말머리 /ㄱ/의 된소리되기이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36)에서 보듯 ‘-라고’의 된소리되기형 ‘-라꼬’처럼 문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2) 특히 부산·경남 지방의 입천장소리되기가 어두음절에 빈도수가 많은데, 이는 청각영상과 관련해서 유절강화로 설명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만하다. 이근열, 앞의 책, 156~166쪽.

(36) ㄱ. 촌사람이라꼬<촌사람이라고(19,22,27)

ㄴ. 추첩다꼬<더럽다고(22)

ㄴ. 혼날라꼬<혼나려고(27)

3.1.7. 탈락

당소리의 강화와 달리 이 지역에서는 당소리 /ㄴ/이 약화되어 탈락 되는 것도 나타난다.

(37) ㄱ. 아인데요<아닌데요(14,17,19,24)

ㄴ. 모르이<모르니(20)

ㄷ. 띠이<띠니(23)

ㄹ. 폰찾았을거이와<못찾았을거니와(23)

ㅁ. 앙이지<아니지(24)

(37)의 경우는 /ㄴ/이 올림소리 사이에서 탈락하는 경우인데 /ㄴ/음이 탈락하면서 콧소리의 흔적을 홀소리에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래톱 이야기>에서는 그 예가 보이지 않으나 다른 김정환 소설 등에서는 “그란이라도(<그리 아니라도), 단딩이(<단단히)”와 같은 예가 빈번히 나타난다. 이는 부산·경남 방언의 한 특색이다.

3.2. 어법적 특성

<모래톱 이야기>에 나타나는 어법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3.2.1. 토씨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토씨는 ‘-꺼정, -사, -쌔’ 등이다.

(38) ㄱ. “그래서 내가 지금 경찰서-꺼정 갔다 오는 길인데,
마침 잘 만났임더.”

ㄴ. “할아버지는 개깃배를 타시고, 재산이랄 끼-사 머 있
입니꺼.”

ㄷ. “우리-쌔 머 압니꺼.”

ㄹ. “물 빠질 땐 개발이-쌔 늘 안 나가는기요.”<모래

툽>

- ㄱ.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저다 뺏기고 말
았지요.”
- ㄴ. “하기-싸 시인들이니칸에 홀롱하겠지요.”

(38ㄱ)의 ‘-꺼정’은, 그 사용빈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38ㄴ)에서 보듯 ‘-사’는 받침 없는 입자씨나 토씨, 씨끝에 붙어서 특히 그에만 한정되거나 그 뜻을 강조하는 도움토씨인데, (38ㄷ, ㄷ, ㄴ, ㄴ) 같이 강조형으로 ‘-싸’로도 많이 나타난다.

3.2.2. 씨끝

먼저 이 소설에서는 예사 높임의 씨끝 ‘-소’가 ‘-이소’와 대립하면서 높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²³⁾

- (39) ㄱ. “촌사람이라꼬 바본 줄 알지 마-소. 여간 답답해서
그런 소릴 하겠소.”
- 1. “그만 하-소. 영감이 머 글이나 이르능기요.”
- ㄷ. “밤낮 한다는 기 ‘꼭구롱 우는 소리’지. 어데 그기나
한 분 해 보-소.”
- ㄴ. “어데, 해 보-소. 모처럼 선생님을 모신 자리니. ”
- (40) ㄱ. “와 뻔히 보능기요? 내 안주 술 안 취했음데이. 염
려 마-이소.”
- 1. “우리 섬에 대한 글 한 분 씨 보-이소. 멋지گی! 재밋
실 낀데이.”
- ㄷ. “말 마-이소. 자, 저리 가서 이야기나 합시더.”

(39)의 ‘-소’는 격식적인 높임 표현으로만 보이고 시킵의 의미와 결합되어 높임의 의도가 약화된 모습이다. (40)의 경우는 ‘이소’가 ‘-소’보다 더욱 높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 높임 표현으로 ‘-이’가

23) 이러한 경남 방언의 높임법 체계에 대하여는 구연미, 『경남방언의 높임법』, 『우리말연구』 제1집, 우리말연구회, 1991, 3쪽을 참고할 것.

‘-시-’와 높임의 등급을 달리하며 그 의미를 분화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특정적인 안맺음씨끝은 (41)에서 보듯 추측의 ‘-리 것이-’가 축약되어 ‘-리끼’로 나타난 경우이다.

- (41)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이문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끼요.”

그리고 인용의 경우 (42)와 같이 ‘-라고’가 주로 ‘-라꼬’로 나타난다.

- (42) ㄱ. “촌사람이라-꼬 바본 줄 알지 마소. 여간 답답해서
그런 소릴 하겠소.”
ㄴ. “이 영감이 보통이 아임데이. 그래도 선배의 씨라-꼬 ...”
ㄷ. “추접다-꼬? 글 배런다-꼬 그라능기요?”

이와 유사한 경우로 (43)과 같이 의도의 ‘-려고’가 ‘-라꼬’로 드러나는 용례도 보인다.

- (43) ㄱ.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날-라꼬.”
ㄴ. “그까진 수박은 견지서 머할-라꼬? 하불실 돼지새끼
라도 아담아 내야지?”
ㄷ. “모두 피난소로 옮기고, 남은 건 물바다뿐임더. 우짖
-라꼬 이놈의 하늘까지!”

의도형의 ‘-려’도 ‘-라’로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다.

- (44) ㄱ. “송내를 넬-라카다가 배만 카이는 사람들까지 폐죽
음을 안 시켰능기요.”
ㄴ. “예, 언제쯤 오실-랍-니꺼?”

조건의 이음씨끝 ‘-면’은 ‘-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45) ㄱ. “돈만 있음 x라도 다 되는 기고, 되-문 나랏땅이나
훑이고 팔아 묵고 그런 놈들이 안 많던지요?”

나.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어-문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 끼요.”

ㄷ. “본대로 물길을 터났다 카드만요. 글 안했으-문 ….”

이외에도 이 지역 방언의 특징적 맺음씨끝은 ‘-가배’, ‘ 여’, ‘-제’ 등
이 보인다.

(46) ㄱ. “우리 전우 선생인-가배요?”

나. “가고 난 뒤 얼마 안돼서 그일이 났단 딸이-여.”

ㄷ. “누명을 써도 문딩이 빨갱이는 되기 싫은 모양이-
제? 송아지 빨갱이는 좋고.”

(46ㄱ)은 추측의 뜻이고 (46나)은 확인 강조 ‘야’가 ‘여’ 형태로 나
타난 경우이다. (46ㄷ)은 확인의 의미인 ‘-지’가 ‘-제’로 나타난 꼴이다.

3.2.3. 인용말 ‘-카다’

‘-고하-’의 축약형 ‘-카-’가 인용의 문법소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 소설의 구성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나 들었던 이야기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부산·경남 방언에서 ‘카다’와 ‘하다’의 대립을 설정하여
‘카다’는 인용하는 말과 관련을 맺고, ‘하다’는 행동과 관련을 맺는 것
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나타나는 ‘-카-’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47) ㄱ. “잘 모릅니더. 저가 두 살 때 군에 나갔다카니 …
그라곤 통 안 돌아 왔거던요.”

나. “군에 나갔다가 그랬다카디더.”

ㄷ. “성은 윤씨고, 이름은 머라카더라.”

ㄹ. “이완용이란 놈이 ‘윤사보호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카더만!”

- ㄱ. “작은놈은 머 사모아 섬이라카던기요, 그 곳 바다 속에 너어 버렸지요.”
- ㄴ. “야, 그래도 살아 온 사람들 말이 암마 ‘워커 라인’ 인가 하는 데서 그랬을 끼라카데요.”
- ㄷ. “와 그 신문같은 데도 그런 기 수타 난다카데요.”
- ㄹ. “우리 거꾸란 놈 말을 들으니 선생님은 글을 잘 썬다카데요?”
- ㅁ. “머 예비검거라 카드나 ….”
- ㅂ. “그거는 송아지 때문이라캐도 ….”
- ㅅ. “막 파헤쳐 버리고, 본대대로 물길을 터놔다 카드만요.”
- ㅇ. “낙동강 잉어가 떠이 정지 바닥에 있던 부지깥이도 떴다 카듯이 ….” (모래톱)
- ㅈ. “예, 수박 자시러 오시라 카디더.”
- ㅊ. “아버진 언제 돌아가셨지?” “육이오 때라 카디더만 ….”
- ㅋ. “선조때부터 물려 받은 밭때기들은 나라 땅이라캐다가, 국회의원 땅이라캐다가 ….”

(47)의 경우는 ‘-카-’가 사용된 보기들인데, 주로 직접인용의 ‘-라, 다’ 뒤에서 분포하는 일반적인 용법이다. (47ㄷ, ㄱ)에서 ‘-카-’는 ‘-캐-’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카-’가 인용의 경우에만 축약되는 것이 아니라 ‘-려고 하다’와 같이 ‘의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카-’로의 축약이 일어난다.

- (48) ㄱ. “암 그래야지. 나도 언제 한 분 꼭 찾아 불러캐는데, 바래다드릴 겸 마침 잘됐구만.”
- ㄴ. “제북 원양어업인가 먼가 송내를 널라카다가 배만 카이는 사람들까지”
- ㄷ. “입으로만 머니머니 해냈지, 발 맨드라 카니 제우 맨들어 논 강쪽이나 파헤치고, 나리 막는다카면서 또 섬이나 둘러마실라카이 ….”

(48ㄱ)의 경우에는 ‘찾아보려고 하다’가 축약된 꼴이고, (48ㄴ)은 ‘내려고 하다’가 축약된 꼴이다. (48ㄷ)의 ‘맨들라카니’는 ‘만들려고 하다’, ‘둘러마실라카이’는 ‘둘러마시려하다’의 의도의 축약형이나 ‘막는다카면서’는 ‘막는다고 하면서’의 인용의 축약이다.

또한 이러한 의도의 축약형은 (49)에서처럼 씨끝으로 굳어지면서 자신의 의도나 생각의 확인, 감탄의 의미로 드러나기도 한다.

(49) ㄱ. “허허 참 세상에는 이런 수도 다 있다카이! 인자 막
선생 이바구를 하고 오던 참인데 ….”

1. “이 노래 하나만은 정말 떨어지게 잘 한다카이!”

(49ㄱ)에서 ‘-카이’가 확인, 감탄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축약형이라기보다 완전히 문법화가 끝난 씨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50)의 경우는 특이한 형태로 보인다.

(50) ㄱ. “하기싸 시인들이니-칸에 홀름하겠지요. 버리도 좋고
… 선생도 시인 아입니까.”

1. “차돌아 너 바라카이는 만약 큰 비가 오문 우리는
꼭다시 물난리 만날기데이”

2. “배만 카이는 사람들까지 폐죽음을 안 시켰능지요.”

(50ㄱ)의 경우 ‘칸에’는 ‘-니까’의 뜻이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확인했다는 말인 ‘--이라고하니까’의 준말로써 ‘-까네’로 나타나는 형태의 변이형이다.²⁴⁾ (50ㄴ)의 ‘바라카이는’은 ‘앞으로 보라마는’의 뜻이지만, ‘바라’는 ‘보라’에서 온 말로 부산 방언에서는 남을 부를 때 쓰는 ‘여보게’ 정도의 관용적 부름말이다. ‘카이’는 ‘말하니’ 뜻이지만 여기에 ‘-는’이 붙으면 ‘말하지만’으로 된다. ‘바라카이는’ 전체가 ‘여보게’ 정도의 관용적 표현이나 그 속에는 ‘너에게만 말하지만’의 뜻이 포함

24) 다른 소설에도 이러한 용례는 보인다.

“암메 지금쭈은 다 갔을지도 모릅니더. 차가 운동 편두막살이 났이니-칸에요.”
<사뱃재>

“그럼, 할 수 있디나, 집에서든 그런 장사를 하자니-칸에 …” <희나뭇골 사람들>

된 말로 쓰이기도 한다. (50ㄷ)의 ‘카이는’은 ‘말하지만’의 뜻이나 ‘뿐만 아니라’의 뜻도 머금고 있다. 이 말도 부산 방언의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졌다.

3.2.4. 어찌씨 ‘안’

‘안’의 쓰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51) ㄱ. 안 됩니까, 안 나가능지요(15)
- ㄴ. 춘삼이 아잉지요(17)
- ㄷ. 그런놈이 안 땀던지요(19)
- ㄹ. 안 망했나(22)
- ㄺ. 시인아입니까(22)
- ㄻ. 짜다라 안 났던지요(23)
- ㄼ. 폐죽음을 안시켰능지요(23)
- ㄽ. 인물아잉지요(27)
- ㅇ. 또 안 글러왔능지요(29)

국어에서 ‘안’은 풀이말 앞에 분포하면서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어찌말이지만 부산·경남 방언에서는 (51)에서처럼 물음의 의미를 가지는 씨끝 앞에서 확인의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법이다. 최은진(2005)에서는 (51)에 나타나는 ‘안’의 용법을 말할이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이에게 더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의도적 반어표현’이라 했다.

4. 마무리

요산 김정한 선생의 소설들은 낙동강 하류 지역 사람들의 정서와 인식이 녹아 있어서, 여기에 구사된 방언들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 동안 문학적 연구에 치중되었던 <모래톱 이야기>를,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어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 소설에 나타난 방언들은 대부분 부산 방언에 포함된다. 소설의

배경인 조마이 섬이 낙동강 하류에 있고, 작가 자신이 부산 출신이므로 당연히 부산·경남 방언권에 속한다. 앞홀소리되기, 동글홀소리되기, 홀홀소리되기, 축약, 입천장소리되기, 된소리되기, 탈락 등 부산 방언의 일반적 음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소설을 통하여 부산 방언에서 앞홀소리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홀소리 음운이 7개의 홀홀소리 체계로 ‘ㅡ’와 ‘ㄴ’의 쓰임이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어법적 특성으로는 특이한 토씨 ‘-꺼정, -싸’, 또 특이한 씨끝 ‘-가배, -여, -제’ 등의 쓰임이 발견되었고, 인용말 ‘-카다’가 ‘말하다’의 뜻 외에도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화로 제시된 자료에는 명료한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소설적 특징 때문에 인물에 따라 토박이 입말이 그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준표준말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 소설 속에는 잊혀져 가는 순수한 토박이말과 방언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어휘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 기술 없이는 요산 소설이 가지는 생동감 넘치는 말맛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주요어: 모래톱 이야기, 방언, 음운 현상, 어법 특성.

참고 문헌

- 구연미, 「경남 방언의 높임법 — 가덕도 지역어를 중심으로 —」, 『우리말 연구』 제1집, 우리말연구회, 1991.
- 김봉모, 「부산 동래 지역어의 특성」, 『한국문화연구』 4, 부산대 한국문화 연구소, 1991.
- 김영송, 「경남 방언」, 『국어 방언학』, 형설출판사, 1974.
- 박지홍, 「경상도 방언의 하위 방언권 설정」, 『인문논총』 제24집, 부산대, 1983.
- 안길남, 『낙동강 하류 가락 지역어 조사 연구』, 세종출판사, 2005.
- 이근열, 『경남 방언의 음운론』, 세종출판사, 1997.
- _____, 「경남 방언의 /ㅅ/과 /ㅆ/의 비변별 현상」, 『우리말연구』 제10집, 우리말학회, 2000.
- 이병운, 「경남 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연구』 제7집, 우리말연구회, 1997.
- 최은진, 「경남 방언의 반어적 표현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황국명, 「김정한 소설의 지역·토박이말과 원전 문제」, 제213차 한글학회 부산지회 연구발표, 2005.

Abstract

A Busan Dialect in *Moraetop Iyagi*

Kim, Bong-Mo

This study is to analyze a Busan dialect of *Moraetop Iyagi* (A Story on Sands Village), which describes the real life of villagers who speak the dialect and is written by the novelist, Gim Jeong-han who speaks it as his first language.

The findings are;

a) The dialect of this novel reveals general phonological phenomena of the Busan dialect: fronting, rounding, and monophthongization of vowels and contraction, palatalization, fortition, deletion of consonants.

b) In particular, it confirms that the Busan dialect in this novel has a 7-Vowel system without diphthongs, and shows a tendency of fronting and different use of /i/(/—/) and /ə/(/ㅏ/).

c) It shows some morphological peculiarities: affix ‘-ggeojeong (‘even’), ‘-ssa(‘as little as’), and sentence final affix ‘-gabae(‘it seems’), ‘-yeo(‘it’s sure’), ‘-je(‘isn’t it?’)

d) It uses a reporting verb of the Busan dialect, ‘-kada’ in other various ways than ‘to say’.

*** Key words:** *Moraetop Iyagi*, dialect, phonological phenomena, morphological peculiarities.

논문투고일 : 2005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10일

게재결정일 : 2005년 10월 18일